

참신한 소재·다양한 장르

올해 한국영화계 도전 빛났다

‘부산행’·‘검사와전’ 등 2억 관객 돌파 ... 스크린 독점 현상 여전

올 한 해 국내 영화시장에서 천만 관객을 넘긴 영화는 ‘부산행’ 한편뿐이었다. 메가 히트작은 드물었지만, 소재와 장르의 지평은 한층 넓어졌다.

좀비와 동성애, 무속, 원전 등 한국영화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소재의 작품이 등장했고 흥행에도 성공했다. 한국 영화시장은 올해도 관객 2억 명을 돌파했다. 외형은 유지했지만 스크린 독·과점 등으로 대형 영화에만 관객이 쏠리는 양극화 현상은 여전했다.

◇색다른 소재·장르, 흥행·평단도 잡았다= ‘추격자’, ‘황해’의 나홍진 감독은 ‘곡성’으로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다.

사마니즘과 오컬트, 좀비물까지 한데 녹여낸 ‘곡성’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신선한 이야기와 충격적인 영상, 반전을 거듭하는 전개로 관객들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다.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갈렸지만, 관객수 688만 명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소재와 장르도 충분히 흥행가능함을 보여줬다.

박찬욱 감독은 ‘아가씨’로 동성애 금기를 허물었다. ‘공동경비구역JSA’(2000)에서 남북병사 간 우정을, ‘올드보이’(2003)에서는 근친상간을, ‘박쥐’(2009)에서는 가톨릭 성직자의 성적 욕망을 다루는 등 늘 사회적 금기에 도전해온 그다.

‘아가씨’에는 두 여배우의 강도 높은 성애묘사가 나온다. 그러나 폭력은 줄고, 이야기 전개는 한층 흥미로워져 박 감독의 청소년관람 불가 영화 가운데 가장 대중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서 429만명이 관람했다.

‘부산행’은 한국형 좀비 영화의 탄생을 알린 작품이다. ‘곡성’에도 좀비가 나오지만, KTX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등장하는 좀비 때의 파괴력은 훨씬 컸다. 천만 관객을 돌파했고 해외에서도 역대 최대인 총 45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김성수 감독의 ‘아수라’도 소재와 내용 측면에서 기존 영화들과 선을 긋는다. 선과 악의 대결, 권선징악 등 한국영화의 흥행공식과는 거리가 멀어 주목할 만한 흥행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마니아층이 생기는 등 팬덤을 만들어냈다.

이외에 중저예산 영화 가운데 선전적 ملی즘 증후군(‘검기왕’)이나 홀몸노인의 죽음을 도와주는 여자(‘죽여주는 여자’), 시간이 멈춘 세계(‘가려진 시간’) 등 참신한 소재를 다룬 영화들이 속속 등장해 한국영화의 외연을 넓히는 데 일조했다.

◇4년 연속 2억 관객...양극화는 여전= 국내 영화시장은 올해도 관객 2억 명을 돌파했다. 2013년에 처음 돌파한 이후 4년 연속 2억 관객 시대를 열었다. 이중 한국영화 관객 수는 5년 연속 1억명을 넘겼다.

영화시장의 외형적 성장은 유지했지만, 내실을 다지지는 못했다.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300여편 가운데 100만명을 넘긴 영화는 21편에 불과했다.

‘부산행’(1156만명), ‘검사와전’(970만명), ‘밀정’(750만명), ‘타닐’(712만명), ‘인천상륙작전’(705만명), ‘럭키’(697만명), ‘곡성’(688만명), ‘덕혜옹주’(560만명), ‘아가씨’(428만명), ‘귀향’(367만명) 등 상위 10편이 한국영화 전체 관객의 70% 가까이 차지했다.

올해 개봉한 약 1500편의 영화 가운데 상위 20편에 전체 관객의 절반 이상인 1억1000명이 쏠렸다. 대형 영화들의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비판’=흥행 공식 여전히 유효= ‘부산행’, ‘타닐’, ‘관도라’는 재난영화이면서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재난에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정부의 무능력과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을 꼬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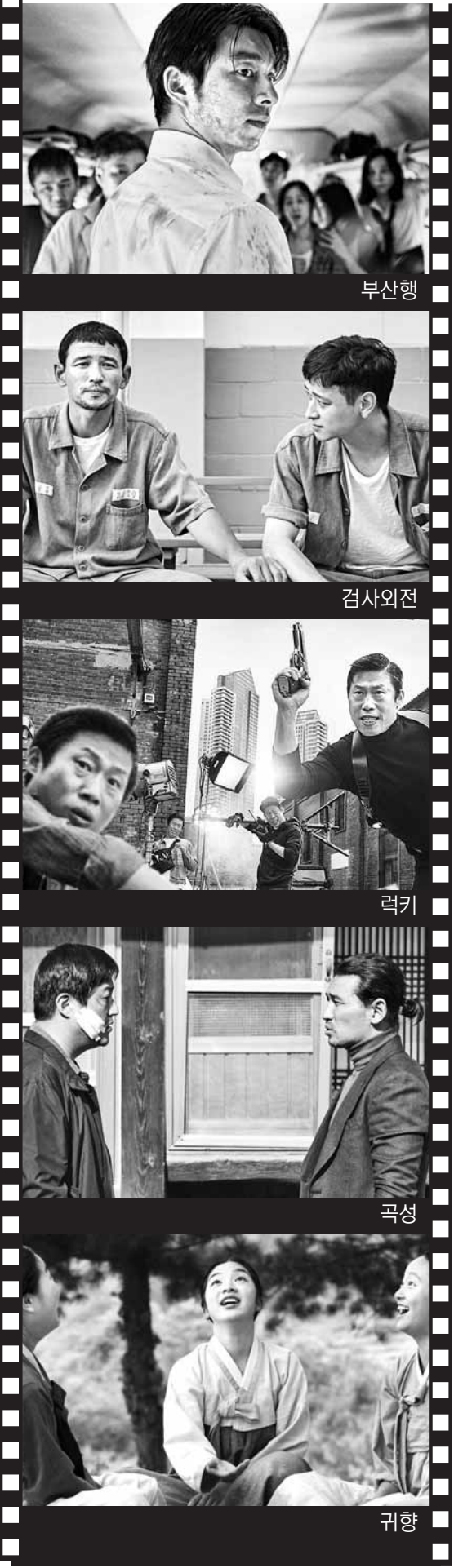
지난해 ‘내부자들’, ‘베��랑’이 각각 범죄와 액션 장르지만 사회비판 테마를 접목해 관객과 거리를 좁힌 것의 연장선에 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도 잇따라 제작됐다. ‘동주’를 시작으로 ‘귀향’, ‘해어화’, ‘아가씨’, ‘덕혜옹주’, ‘밀정’ 등이 줄줄이 개봉됐다.

코미디 영화도 인기를 끌었다. ‘굿바이싱글’(211만명), ‘봉이 김선달’(205만명)에 이어 ‘럭키’(697만명)가 예상치 못한 잭팟을 터뜨렸고 ‘형’도 순항 중이다.

◇남성영화 ‘홍수’ 속 여배우 활약= 남성중심 영화가 쏟아진 가운데 ‘아수라’를 비롯해 남자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는 말티캐스팅 영화들이 줄을 이었다. 이 틈을 비집고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여성 배우들도 있었다.

중견 배우 윤여정은 올해 ‘제2의 전성기’라 불릴 정도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영화 ‘죽여주는 여자’로 제10회 아시아태평양 스크린 어워즈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는 등 국내외 각종 영화제를 휩쓸었다. 손예진은 ‘덕혜옹주’로 인생연기를 펼치며 연기파 배우로 발돋움했다.



박보검 ‘올해를 빛낸 텔런트’에

시청자 지지율 35%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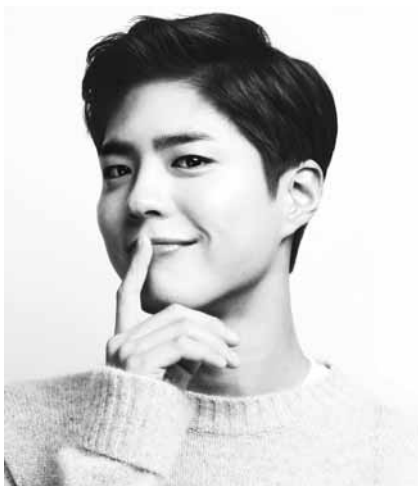
송중기·송혜교 뒤이어

국민적 사랑을 받은 ‘응답하라 1988’에 이어 ‘구르미 그린 달빛’까지 연타석 흡연을 친 배우 박보검(사진)이 시청자가 뽑은 ‘올해를 빛낸 텔런트’ 1위에 올랐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4~25일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올 한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텔런트를 두 명까지 질문한 결과 박보검이 1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총 35.2%의 지지를 얻은 박보검은 2011년 영화 ‘블라인드’로 데뷔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송된 tvN ‘응답하라 1988’에서 현재 바둑기사 ‘택’ 역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매력적인 왕세자 ‘이영’으로 분해 ‘박보검 신드롬’을 일으켰다.

2위와 3위는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 KBS



2 ‘태양의 후예’의 ‘유시진’역 송중기(28.1%)와 ‘강모연’역 송혜교(12.6%)에게 돌아갔다.

4위는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남장 내시 ‘홍라온’으로 첫 주연을 맡은 김유정(8.2%)이, 5위는 SBS ‘질투의 화신’ 조정석(4.6%)이 차지했다.

/연합뉴스

예능계 양대산맥 유재석·강호동이 뒀다

‘런닝맨’ 개편 ... 내년 초 시즌2

김종국·송지효 하차

한류를 이끄는 SBS TV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이 다음 달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14일 SBS와 강호동 소속사 SM C&C 등에 따르면 ‘런닝맨’은 내년 1월 중에 시즌2를 시작하기로 하고 강호동을 새롭게 가용했다.

이로써 ‘런닝맨’은 유재석과 강호동이라는 국내 최정상급 예능인을 두 축으로 거느리게 됐다.

강호동과 유재석의 호흡은 2007년 종영한 ‘X맨’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10월 종영한 KBS 2TV ‘우리 동네 예체능’을 마지막으로 지상파 3사에서 철수했던 강호동은 4개월 만에 복귀하는 셈



유재석

강호동

이다.

‘런닝맨’ 초창기부터 뛰었던 송지효와 김종국은 하차가 확정됐다. ‘런닝맨’을 통해 한류스타로 발돋움한 이광수의 하차 여부

는 미정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봄날〉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최순실 국정조사 4차 청문회	10 좋은아침
10	00 최순실관련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00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
11		00 일일드라마〈다시, 첫사랑〉(재)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드라마 〈아빠님 제가 모실게요〉(재)	00 SBS 12 뉴스 40 KBC 12뉴스
1	00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05 특집 무형유산 한마당 전통의 멋과 흥 55 숨터 내가 사랑한 문화유산 (재)	00 생생정보 스페셜	25 리얼스토리 논 55 최순실 국정조사 4차 청문회	00 TV블로그 쏘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2	00 최순실관련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
3		00 자통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누가 누가 잘하나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플러스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30 SBS 뉴스 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교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쏘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비타민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오 마이 금비〉	0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00 드라마 스페셜 〈푸른 바다의 전설〉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미래의 조건, 뉴스토리러시〉	10 해피 투게더	10 닥터고	10 자기가-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24 55 MBC 다큐프라임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똥똥똥 유치원 1~3 08:45 Why - 최고! 호기심딱지(재)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시계마을 티키토!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부모 〈위대한 연마〉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참샘말이 지점과 고구마라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12:40 역사채널e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스콜랜드-한자왕국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출동! 슈퍼월스 14:2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기탐험대	15:20 꼬마기사 마이크 15:35 요술상자 15:45 코코코다코 16:15 두다다쿵 16:30 Why - 최고! 호기심딱지(재) 16:45 똥똥똥 유치원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세계 안전 대회〉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도시분석 홍콩, 마카오 - 섬 속의 섬을 걷다〉 21:30 한국기행 〈인생보다 야생 - 신출귀몰, 이 남자가 사는 법〉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부모고시 - 2교시〉 22:45 다문화 교부연결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일도 사랑도 윤이 좋아야 성공한다?〉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5일(음 11월 17일 辛未)			
子	48년생 사들려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60년생 마음에 다 차지 않더라도 무던하게 대하는 것이 현명하다. 72년생 술은 끝 때 걸러야 하느니라. 84년생 이전과 똑같은 상황만 되풀이될 뿐이니 일찌감치 접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77, 53	午	42년생 노력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54년생 냉철한 이성에서 비롯된 생각은 복주머니를 만들리라. 66년생 실제로 있어서는 전혀 다른 판세임을 인식하게 된다. 78년생 열과 성으로 공을 들인다면 꼭 이루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8, 96
丑	49년생 주변에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곳이 보인다. 61년생 마음을 안정시키고 태산처럼 있느라면 반전되리라. 73년생 오감을 만족시키는 기쁨이 보이느니라. 85년생 검토해 보고 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74, 43	未	43년생 이리저리 잘 굴리헤 본다면 훨씬 나은 방법을 찾게 된다. 55년생 지지부진했던 일이 완전한 결말을 짓게 되는 날이다. 67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 옳다. 79년생 아무것도 아니니 가볍게 넘겨도 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58, 78
寅	50년생 평상시에 상당히 불편해 왔던 것이 본격적으로 두드러지면서 난감해졌다. 62년생 행하다 보면 다른 일에 소홀할 수도 있다. 74년생 큰 코 다칠 수도 있느니라. 86년생 불안전하지만 전혀 무리가 없겠다. 행운의 숫자 : 71, 95	申	44년생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대국에 놓여 있도다. 56년생 대세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68년생 그냥 지나치지 말라. 80년생 직접적이라 하더라도 편면에 얽매이면 큰 안목을 놓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1, 45
卯	51년생 아주 가까이에 있느니 주변을 잘 살펴보도록 하자. 63년생 정오의 실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75년생 아까리다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 87년생 오로지 현안에 대해 서만 몰두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0, 72	酉	45년생 핵심 관권을 놓친다면 잡은 고기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빈 그릇만 남은 꼴이 된다. 57년생 불상사가 생길 여지는 충분하다. 69년생 확인을 하는 습관이 절실한 때이다. 81년생 서두르다 보면 부작용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73, 40
辰	40년생 우려해 왔던 형세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52년생 나중으로 미룬다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64년생 전과 똑같다. 76년생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 88년생 중심을 잡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62, 97	戌	46년생 평상시에 해오던 방법대로만 행한다면 손쉽게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58년생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겠다. 70년생 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82년생 실제적 역량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52, 08
巳	41년생 어떠한 재난에도 능히 당해 낼 수 있으리라. 53년생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65년생 거둬들 잘 추스르는 것이 중요하다. 77년생 원칙만 고집하다가는 중요한 것을 놓친다. 89년생 진정한 의미를 알라. 행운의 숫자 : 49, 19	亥	47년생 잘 될 것이니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59년생 애타는 섬 치면 속 편할 것이다. 71년생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이리라. 83년생 다 지나간 일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행운의 숫자 : 82, 5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